# 돌아온 불혹의 해결사, KIA 대권 도전 마침표 찍는다

### 최형우, 지난 27일 1군 복귀 첫 타석서 우월 투런포 작렬 노게임 위기 후 결승타 기록 "후배들이 영화같이 산다고"

KIA타이거즈 외야수 최형우가 지난 27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SSG랜더스와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시즌 13차전 1회말 2사 1루에서 우월 홈런을 터트린 뒤 동료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후배들이 영화같이 산다고 했어요. 복귀하자마자 홈런을 쳤는데 비가 정말 많이 와서 초조했죠. 30분이 거의 다 돼서 갑자기 멈추는데 제가 봐도 영화 같더라고요."

20일 만에 옆구리 부상을 털고 돌아온 KIA타이거즈 외야수 최형우가 너털웃음을 지었다.

복귀 타석에서 우월 투런포, 그리고 우천으로 인한 52분의 중단까지. 스스로 이야기한 대로 정말 영화와도 같은 복귀전이었다.

최형우는 지난 27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SSG랜더스와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시즌 13차전에 4번 타자 겸 지명 타자로 선발 출장해 1회말 2사 1루에서 로에니스 엘리아스를 상대로 홈런을 터트렸다. 이날 경기가 5회말 직후 강우 콜드로 종료되면서 이 홈런은 결승타가 됐다.

최형우는 이날 경기 직후 기자들과 만나 "후배들이 영화같이 산다고 했다. 쉬다가 오자마자 홈런을 치고 하니까 띄워주려고 하는 것 같다"고 쑥쓰러워하면서도 "홈런이 분위기를 살린 것 같고, 이겨서 다행이다. 지금까지 홈런 쳤을 때 비가 온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우천 노게임을 걱정하는 마음을 알 것 같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경기는 우천으로 두 차례 중단이 이뤄질 정도로 날씨 변수가 컸다. 4회말에는 52분간 중단됐으나 빗줄기가 잦아들며 경기가 재개됐고, 5회말 종료 직후에는 32분간 중단된 끝에 강우 콜드가 선언됐다.

최형우는 "뭔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처음부터 말도 안 되게 홈런이 나왔다"며 "이후에 비가 정말 많이 와서 초조하기도 했다. 처음 경기가 중단됐을 때 30분이 다 돼서 갑자기 비가 멈추는데 정말 영화 같았다"고 감탄했다.

이범호 감독은 이날 경기를 앞두고 공격 야구를 천명하기도 했다. 최형우를 복귀전에서 4번 타자 겸 지명 타자로 기용하면서 이 공격 야구의 핵심으로 꼽았는데, 이 감독의 기대에 확실히 부응하는 모습이었다.

최형우는 "운이 좋아서 됐다. 공격 야구라는 게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다"며 "타자들이 더 집중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더 공격적으로 해서 생각이 복잡해지면 오히려 잘못된다. 하던 대로 하면 되고 충분히 모두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형우는 이날 투런포를 터트리면서 올 시즌 100번째 경기에서 20홈런, 95타점 째를 채웠다. 2020시즌 이후 4년 만에 20홈런 고지에 올랐고, 100타점 고지까지 바라보고 있다.

그는 "오랜만에 20홈런을 쳤다. 아직 힘이 있다고 생각했고, 하늘이 도와준 것도 있다"며 "100타점을 하려고 왔다. 타점상은 말이 안 되고 후배들을 이끌어주면서 가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겸손함을 드러냈다.

다만 최형우의 내복사근 회복 상태는 아직 100%가 아니다. 지난 19일 재검진에서 약 80% 회복됐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통증을 느끼지 않아 스스로 빠른 복귀를 준비하겠다고 나섰다.

그는 "팀이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급하게 복귀를 준비할 이유는 없었지만 지난 주부터 통증이 없었기 때문에 준비에 들어갔다"며 "모든 선수들이 안 아프면 운동을 한다. 완전히 붙게 하려면 두 달 세 달이 걸리는데 빨리 야구를 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KIA타이거즈가 대만 프로야구 중신 브라더스 소속으로 활약한 투수 에릭 스타우트와 대체 외국인 선수 계약을 체결했다. 중신 브라더스 페이스북

### 대만 중신 브라더스서 영입 올 시즌 10승… 다승 3위

월 크로우를 시작으로 이의리와 윤영철, 제임스 네일까지 부상으로 이탈하며 올 시즌 개막 선발진에 양현종이 유일하게 남은 KIA타이거즈가 대체 외국인 선수 영입으로 이범호 감독의 마운드 고민 해결에 나섰다.

KIA는 대만 프로야구(CPBL) 중신 브라더스에서 활약한 투수 에릭 스타우트와 연봉 4만5000달러(약 6000만원)에 대체 외국인 선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스타우트는 올해 정규 시즌에 한해 턱관절 골절로 수술을 받은 네일의 빈자리를 채운다.

미국 일리노이 글렌 엘린 출신인 스타우트는 신장 188㎝, 체중 98㎏의 체격을 지녔다. 메이저리그에서 2시즌, 마이너리그에서 9시즌(트리플A 6시즌)을 활약했으며 지난해 후반기 대만 무대로 건너갔다.

스타우트는 2018년 캔자스시티 로열스, 2022년 시카고 컵스와 피츠버그 파이리츠 소속으로 메이저리그 23경기에 구원 등판해 1홀드 1세이브와 평균자책점 7.30을 기록했다.

마이너리그에서는 아홉 시즌 간 234경기(선발 23경기)에 나서 27승 19패 20홀드 20세이브와 평균자책점 4.26을 기록한 뒤 대만 무대에 진출해 본격적인 선발 자원의 길을 걸었다.

지난해 후반기부터 대만 무대를 밟은 스타우트는 두 시즌 간 32경기(선발 31경기)에 나서 16승 10패 1홀드와 평균자책점 2.96을 기록했다. 특히 올 시즌 평균자책점 7위(2.77), 다승 3위(10승), 탈삼진 4위(109개) 등 수비 지표에서 상위에 올랐다.

스타우트는 140㎞대 중후반의 패스트볼과 스위퍼, 커터, 체인지업 등 다양한 변화구를 구사하며 트리플A 통산 9이닝 당 8.4개, CPBL 통산 9이닝당 9.3개를 챙기는 등 강력한 탈삼진 능력을 갖췄다.

한편 KIA타이거즈는 에릭 스타우트와 대체 외국인 선수 계약 체결을 위해 '외국인 선수 고용 규정 제10조'에 따라 지난 27일 오후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제임스 네일에 대한 재활 선수 명단 등재를 신청했다.

한규빈 기자

## 전남 선수단, 전국체전에 1130명 '출사표'

### 양궁 남수현·복싱 임애지 등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메달 사냥에 성공하며 대한민국과 전남도를 빛냈던 양궁 남수현(순천시청)과 배드민턴 정나은(화순군청), 사격 조영재(국군체육부대), 펜싱 최세빈(전남도청), 복싱 임애지(화순군청) 등이 이번에는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 도전장을 던졌다.

전남도체육회는 지난 23일 마감된 이번 대회 참가 신청에 49개 종목과 177개 종별에 선수 1130명과 임원 618명 등 총 1748명의 선수단이 이름을 올렸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47개 정식 종목과 2개 시범 종목 등 49개 종목에서 203개 종별로 펼쳐진다. 전남 선수단은 49개 종목에 모두 도전장을 냈지만 고등부 11개 종별과 대학부 5개 종별, 일반부 10개 종별 등 총 26개 종별에는 불참한다.

전남 선수단은 지난 2022년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종합 순위 13위를 기록했으나 이를 뛰어넘는 성적을 거두겠다는 각오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메달 사냥에 나섰던 선수들이 선봉에 선다.

배드민턴의 안세영(삼성생명)과 수영의 김민섭(독도스포츠단), 사격의 이보나(부산광역시청) 등은 소속 팀에 따라 전남 선수단으로 출전하지 못하지만 양궁의 남수현을 필두로 배드민턴의 정나은, 사격의 조영재, 펜싱의 최세빈, 복싱의 임애지 등이 건재하다.

또 메달 사냥에는 고배를 마셨지만 국군체육부대 소속으로 군 복무를 병행하고 있는 근대5종의 서창완과 육상 세단뛰기의 김장우도 전남 선수단의 선전에 힘을 보탤 수 있다.

고교·실업 팀들도 충분히 저력을 갖췄다. 축구의 광양여고와 배구의 순천제일고, 검도의 무안군청, 럭비의 한국전력, 복싱의 화순군청, 씨름의 영암군청, 양궁과 소프트테니스의 순천시청 등이 메달 경쟁에 뛰어들 전망이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40일 남짓 남은 개막까지 우리 선수단이 강도 높은 집중 훈련을 통해 경기력 향상 등 우수 성적을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전남도민들께서도 우리 선수단에게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대진 추첨은 오는 30일 오후 2시 경남 김해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축구와 야구, 소프트볼 등 27개 종목에 대한 대진 추첨이 이뤄지기 때문에 메달 사냥에 대한 1차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한규빈 기자

## 광주 근대5종, 대한체육회장배서 메달 6개 수확

### 금 2·은 2·동 2개

광주 근대5종 선수단이 제2회 대한체육회장배 전국 근대5종 경기대회에서 6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광주 근대5종 선수단은 23~28일 강원 인제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광주체육중 송현서(3년)·이루리·양보민(이상 2년)·한다예(1년)는 여중부 3종 단체전에서 총 3131점(수영 1050점 1위·레이저런 2082점 1위)을 합작하며 서울체중(2067점)과 경기체중(2985점)을 제치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광주체육중 송현서·양보민·이루리는 여중부 릴레이에서도 총 660점(수영 257점 1위·레이저런 403점 1위)으로 금메달을 추가했다.

광주체육중 이루리는 여중부 3종 개인전에서 총 841점(수영 274점 5위·레이저런 567점 2위)으로 서울체중 김지윤(850점)에 이어 은메달을 획득했다.

송학건설 김은옥·이채민·조하은은 여일부 4종 단체전에서 총 3033점(수영 788점 1위·펜싱 622점 2위·레이저런 1623점 2위)으로 강원도체육회(3114점)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김은옥·이채민·조하은은 여일부 릴레이에서는 총 842점(펜싱 205점 2위·수영 246점 3위·레이저런 391점 3위)으로 동메달을 추가했다.

광주체육고 방준서·전태환(이상 3년)·최지웅(1년)은 남고부 릴레이에서 총 1023점(펜싱 220점 1위·수영 289점 5위·레이저런 514점 7위)으로 동메달을 합작했다.

최동환 기자